

EPS재활용협회 18기 정기총회 개최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3월4일 18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3월4일 오전 11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9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2010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스티로폼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재활용 목표 73% 달성, 공제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해외 EPS(Expandable Polystyrene) 수산물상자 재활용 실태 현지견학, 효율적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형, 완구, 종합제품 EPS포장재 사용규제 해제 건의, 재활용비용 산정 연구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19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SH에너지화학,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 제조기업 5개사와 포장재 가공기업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재활용 의무생산자 300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실시된 스티로폼 포장재의 분리수거 이후 다양한 재활용 촉진 활동을 통해 1994년 21%에 머물렀던 재활용률을 2009년 72%(잠정치)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3/03>